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제73차 CATI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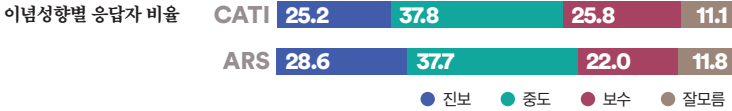
제88차 ARS조사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CATI 조사개요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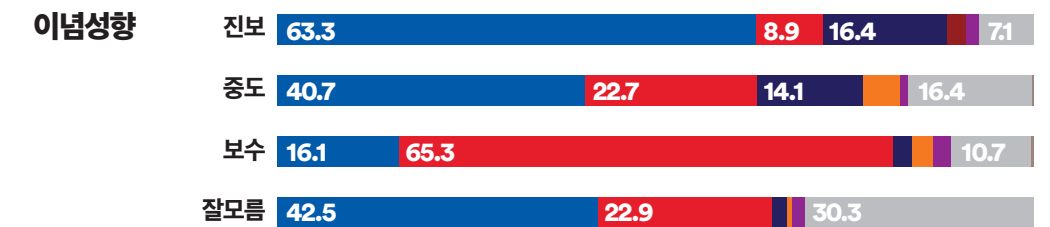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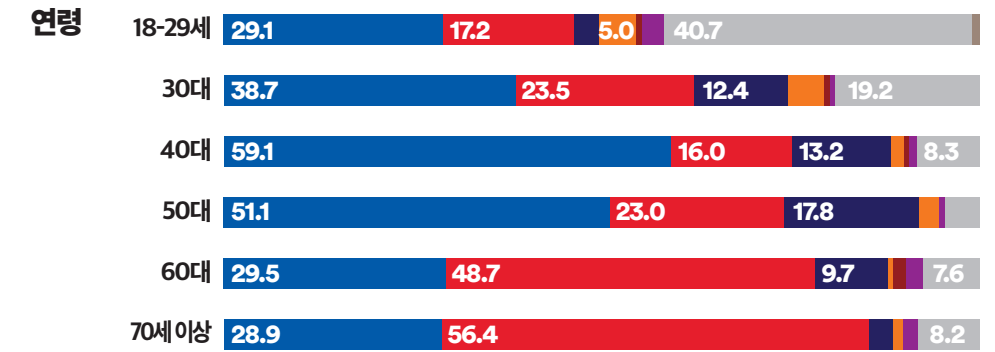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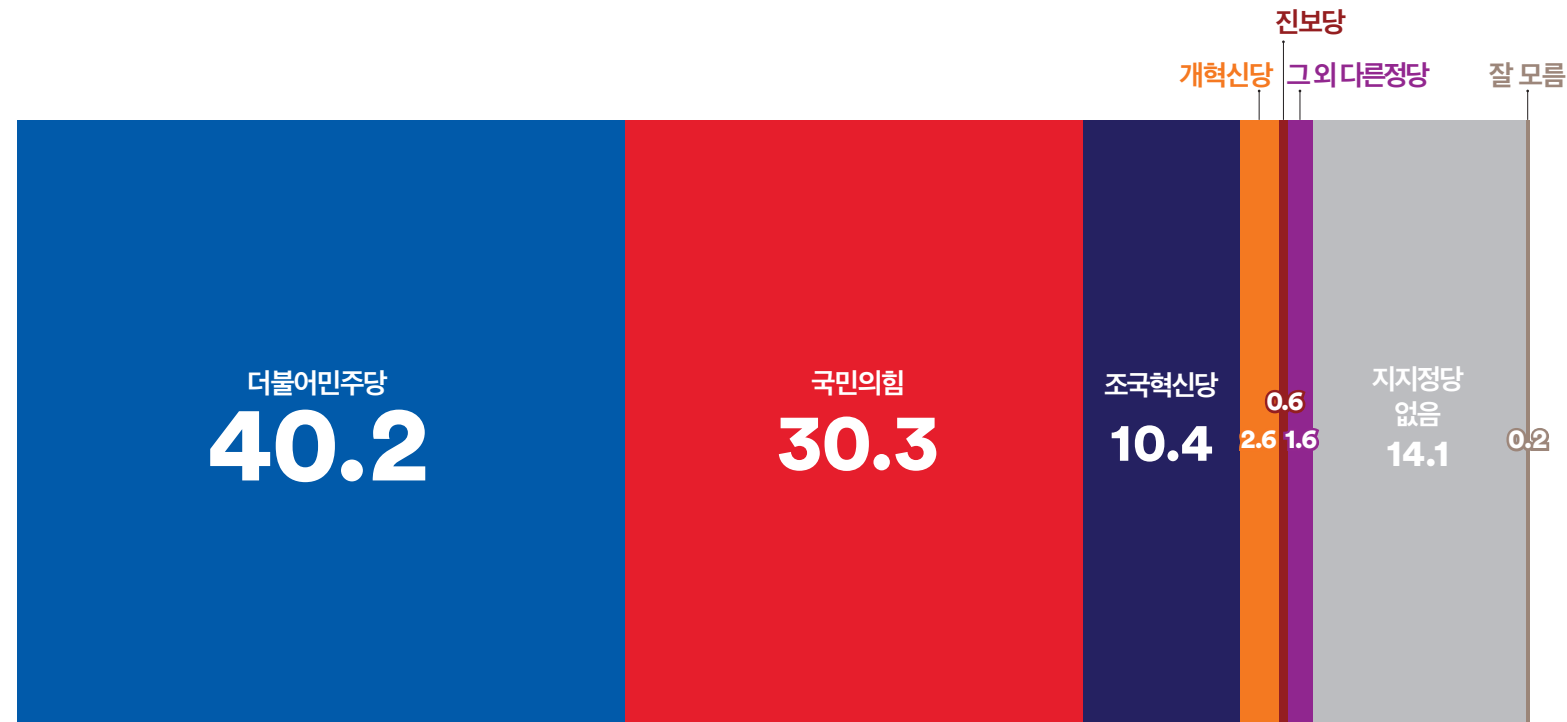
WWW.FLOWERRESEARCH.COM

본 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원사', '조사방법',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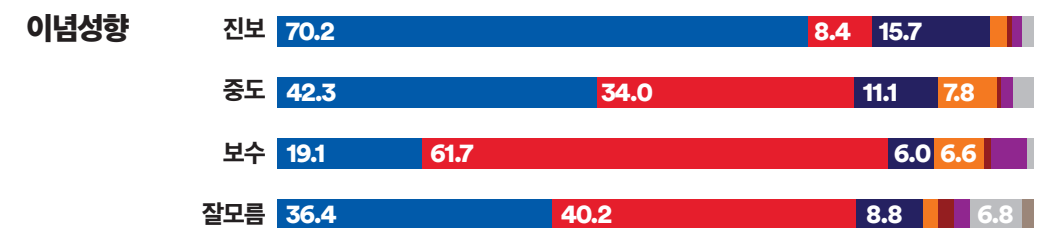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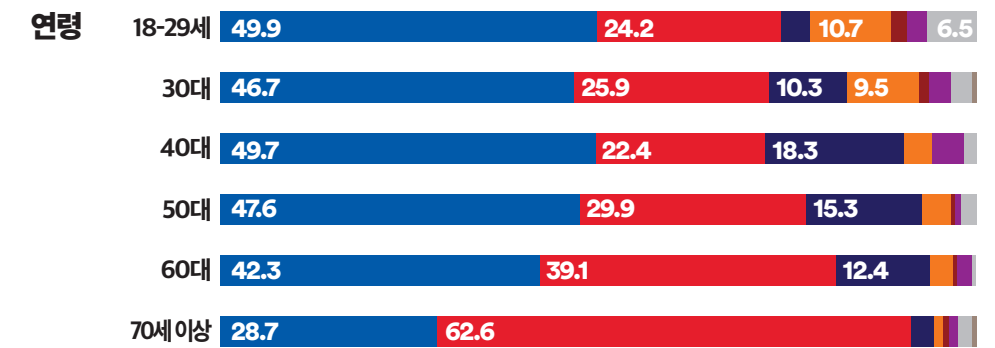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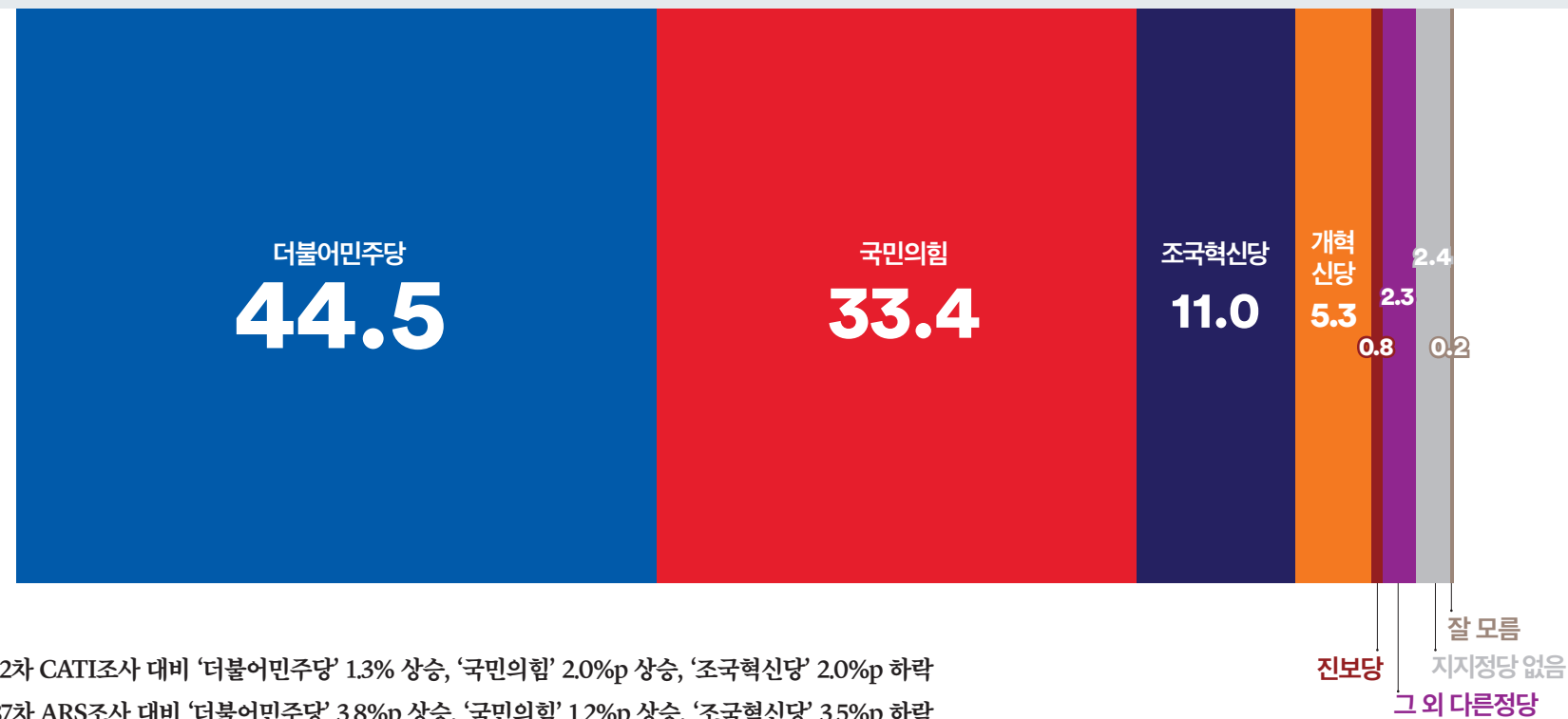
본 조사결과를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괏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순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당지지도와 국정운영 평가는 재질문을 포함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무당층'은 보기에서 '지지 정당 또는 후보가 없다'라고 응답한 계층을 의미하며 정당지지도와 국정운영 평가는 재질문을 포함한 결과입니다.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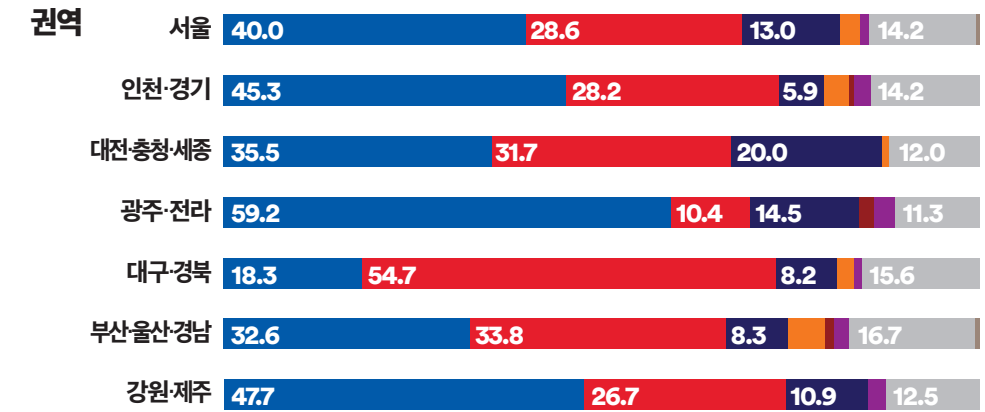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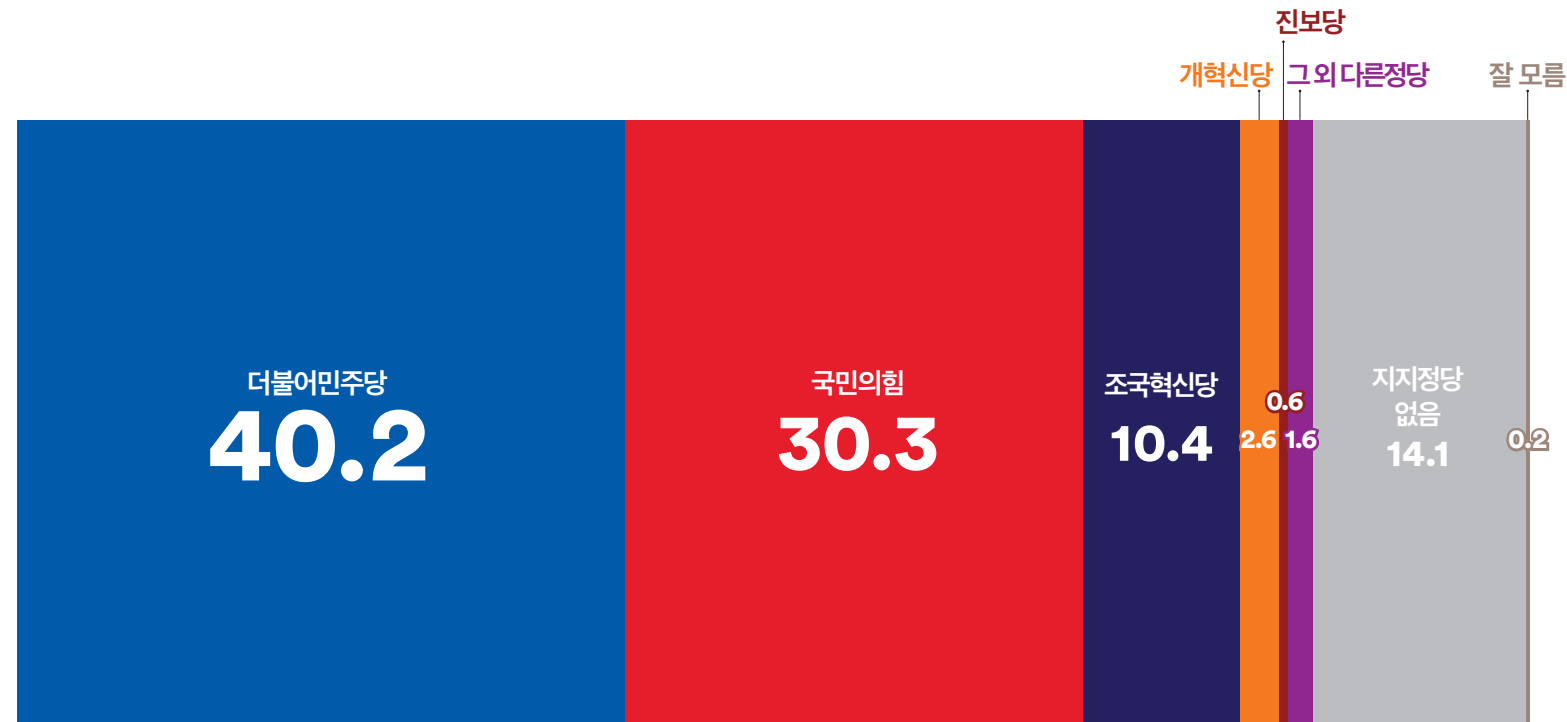


72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3%p 상승, '국민의힘' 2.0%p 상승, '조국혁신당' 2.0%p 하락
 87차 ARS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3.8%p 상승, '국민의힘' 1.2%p 상승, '조국혁신당' 3.5%p 하락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CATI 9.9%p, ARS 11.1%p(지난주: 10.6%p, ARS 8.5%p)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CATI 20.3%p, ARS 22.1%p(지난주: CATI 23.0%p, ARS 23.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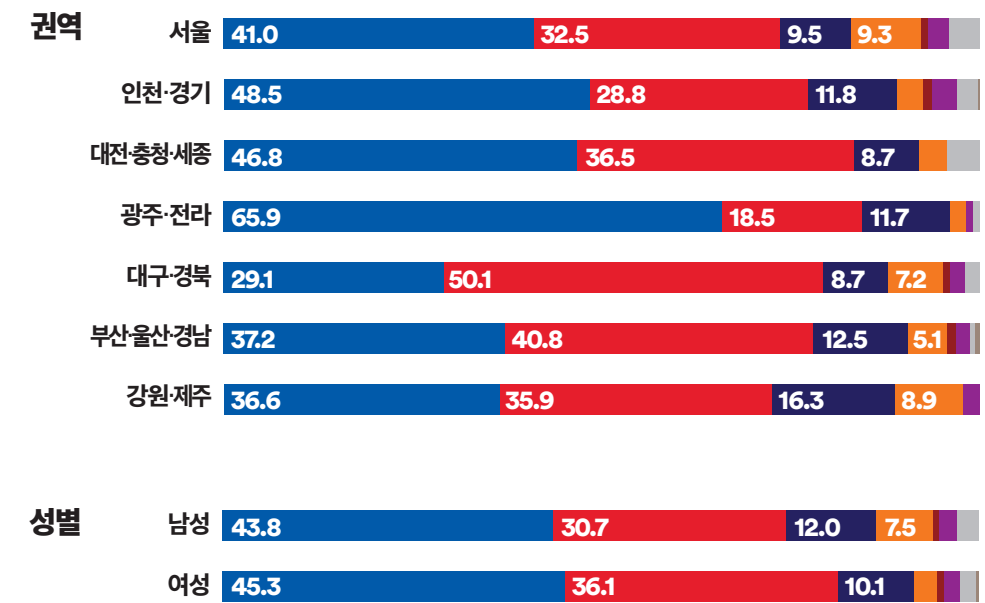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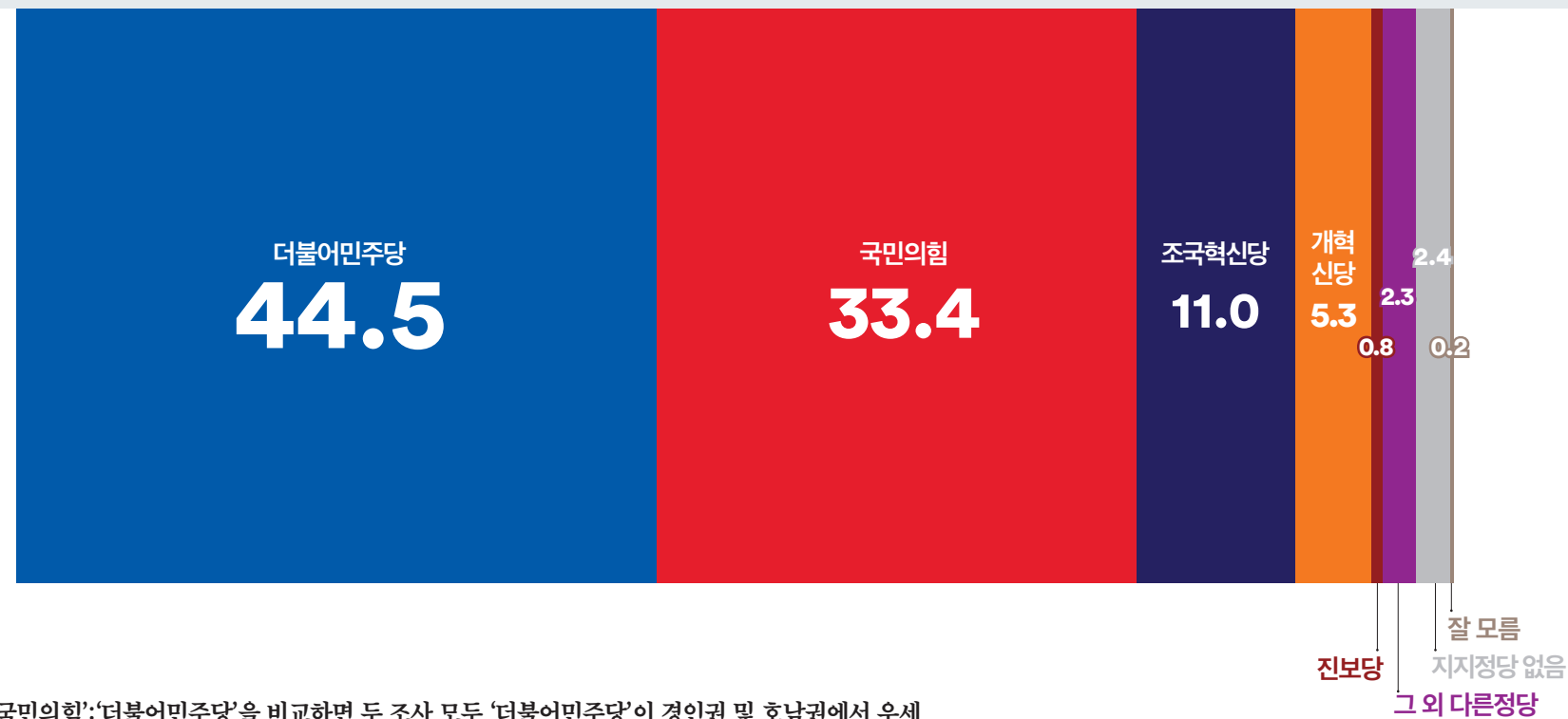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 외 다른 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경인권 및 호남권에서 우세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수도권 및 호남권(CATI 충청, PK 포함)에서 우세
‘국민의힘’은 TK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범야권 합산 지지율 대비 앞서거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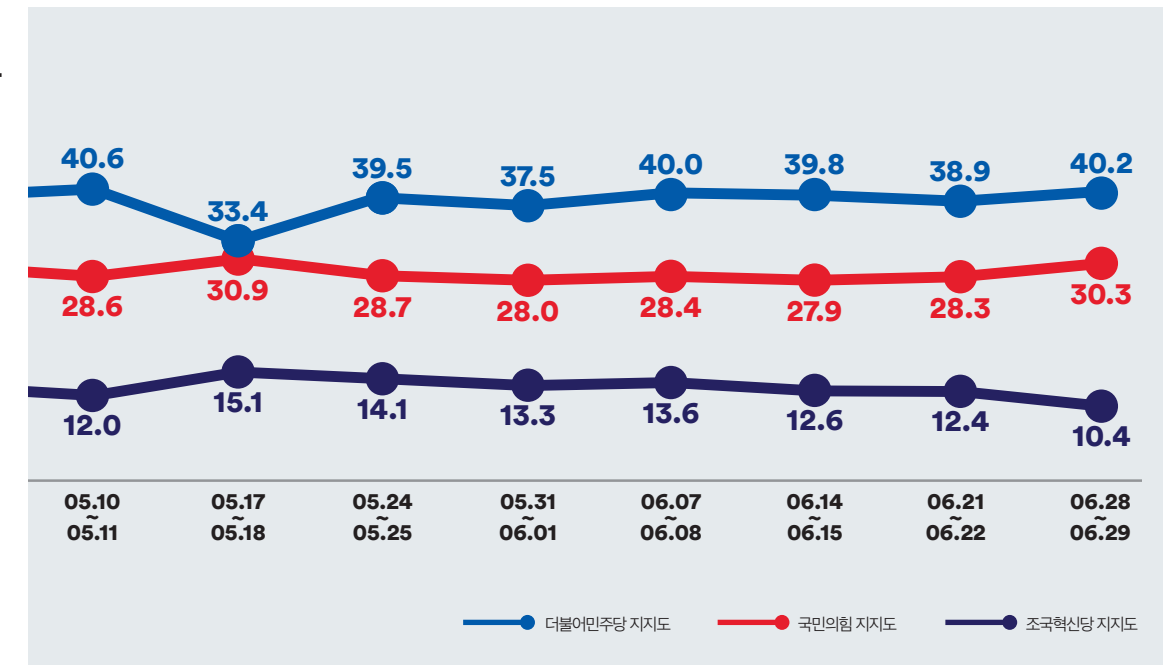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 외 다른 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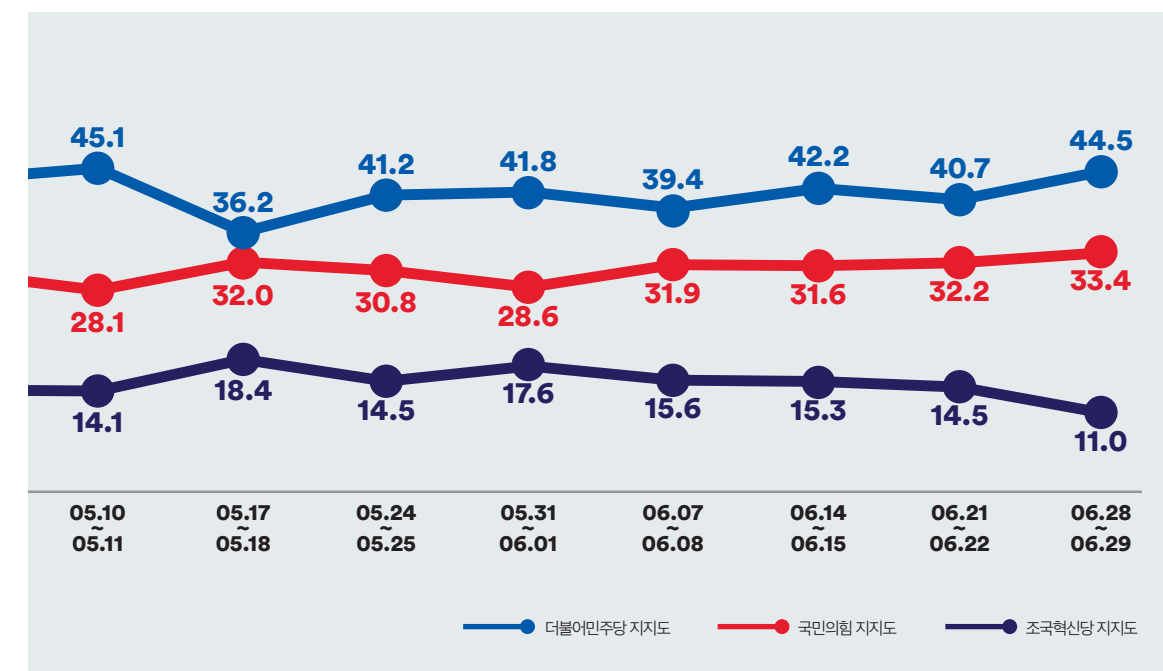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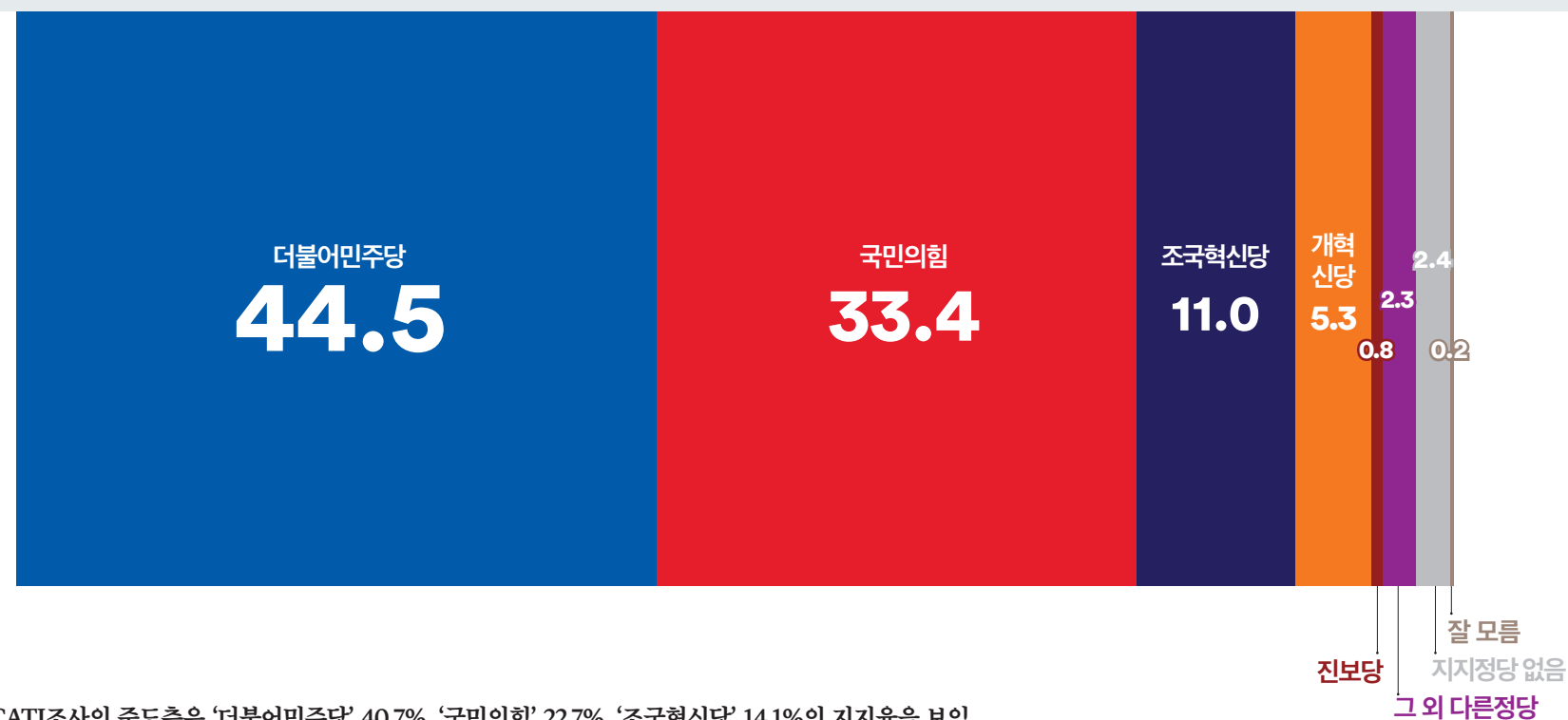
CATI



주차별
정당지지도



ARS



CATI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0.7%, '국민의힘' 22.7%, '조국혁신당' 14.1%의 지지율을 보임

ARS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2.3%, '국민의힘' 34.0%, '조국혁신당' 11.1%의 지지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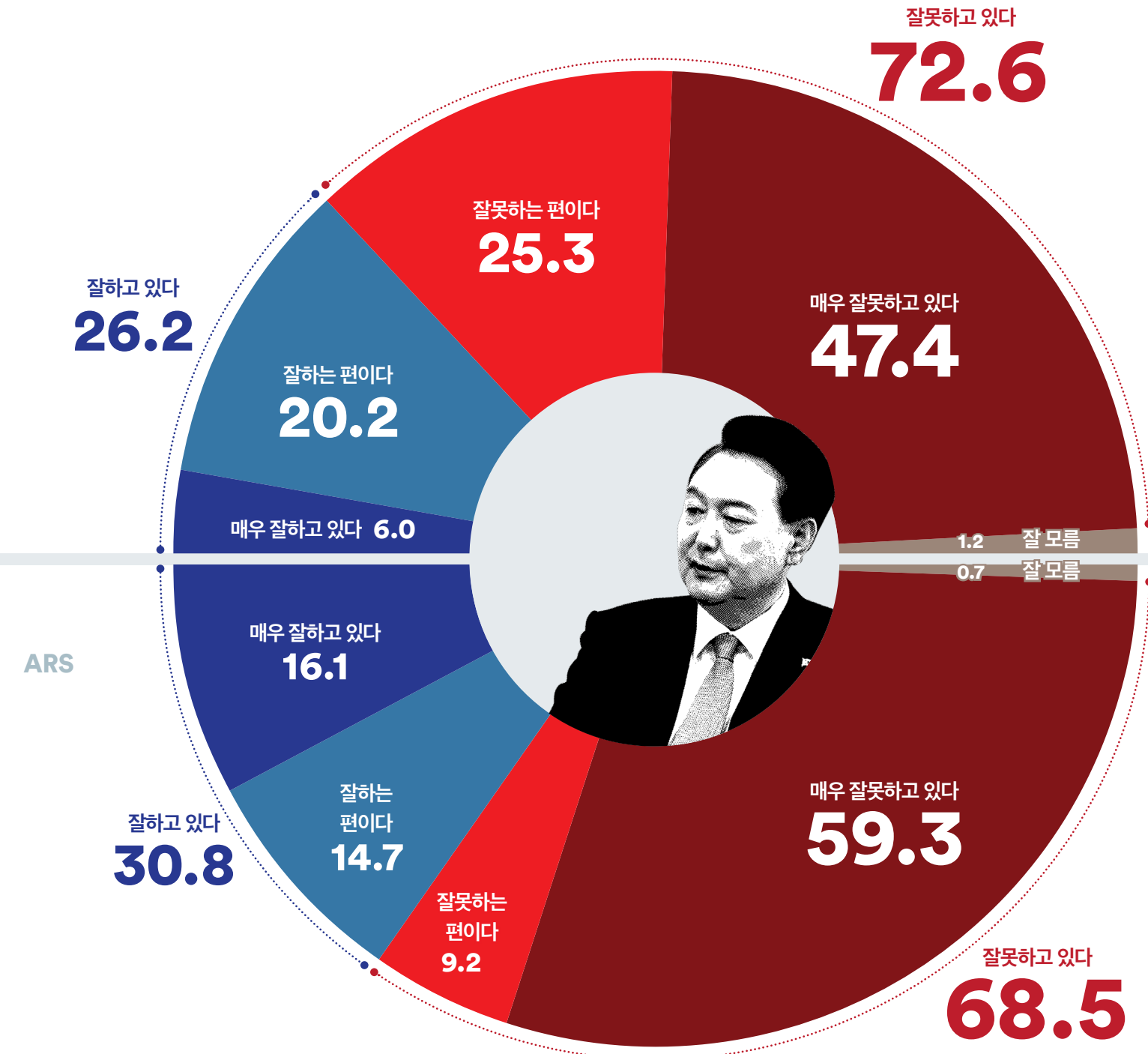
중도층에서의 양 세력('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간 지지율 격차는 CATI 32.1%p(72차: 33.1%p), ARS 19.4%p(87차: 27.1%p)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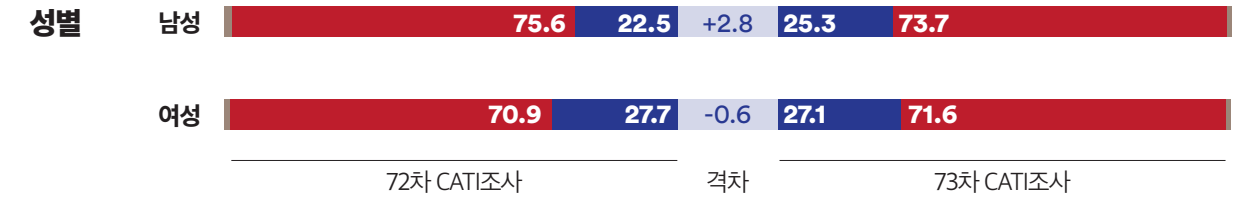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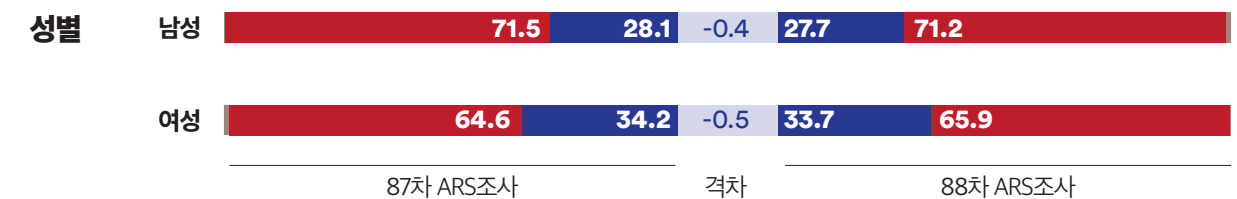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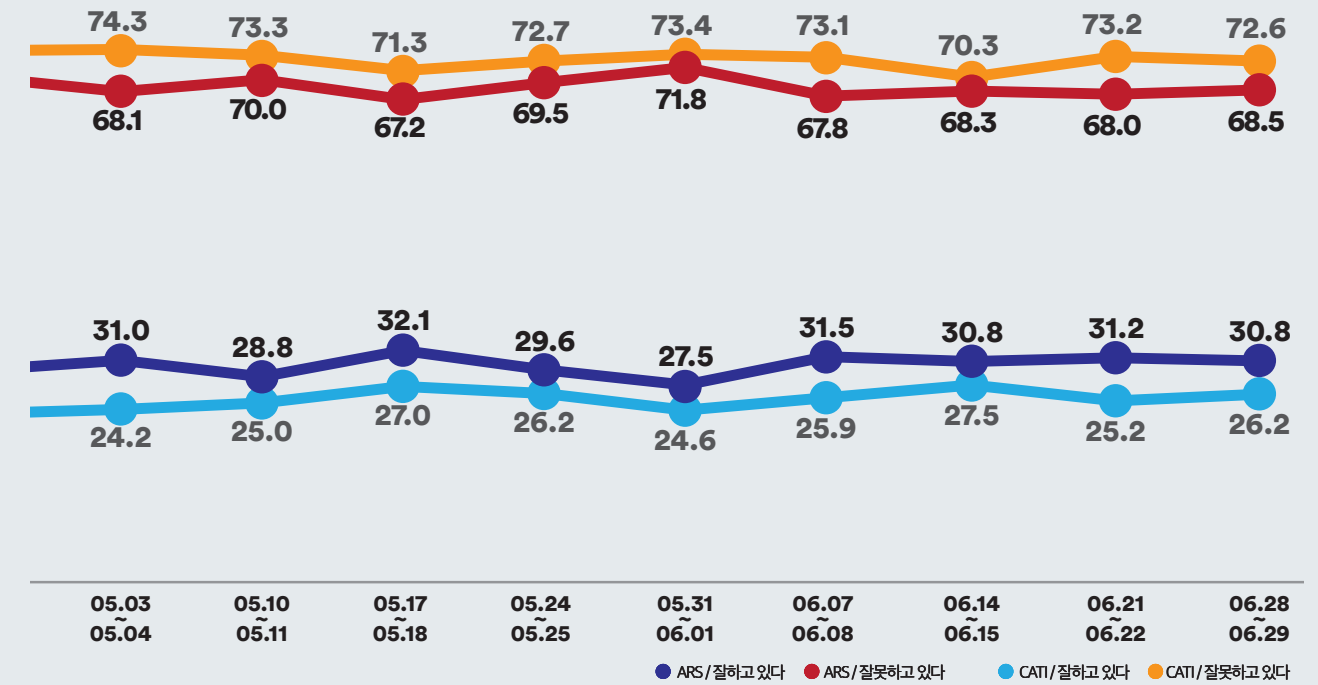
CATI



지난 72차 CATI조사 대비 '긍정' 평가 1.0%p 상승, '부정' 평가 0.6%p 하락(격차 46.4%p)
 지난 87차 ARS조사 대비 '긍정' 평가 0.4%p 하락, '부정' 평가 0.5%p 상승(격차 37.7%p)
 두 조사의 모든 권역 및 남·녀 모두, 60대 이하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 앞서거나 우세
 중도층의 평가 간 격차는 CATI 56.3%p(지난 조사: 63.3%p), ARS 38.2%p(지난 조사: 45.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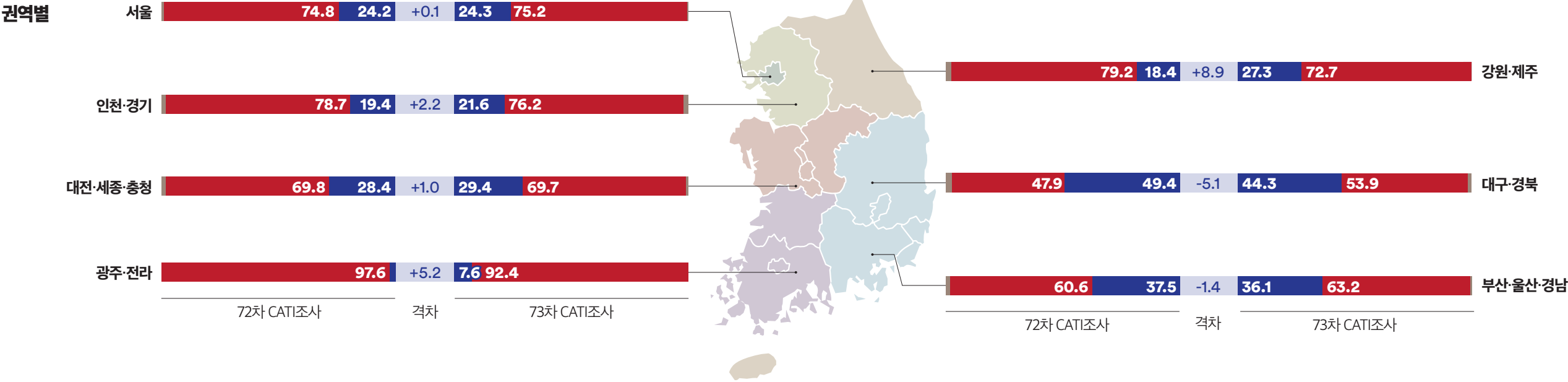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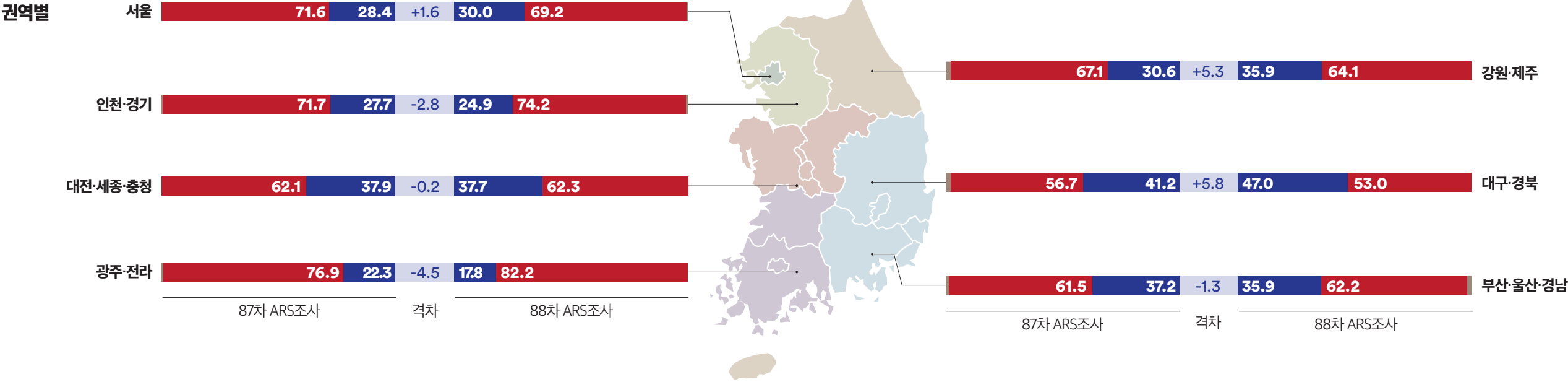
격차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는 편이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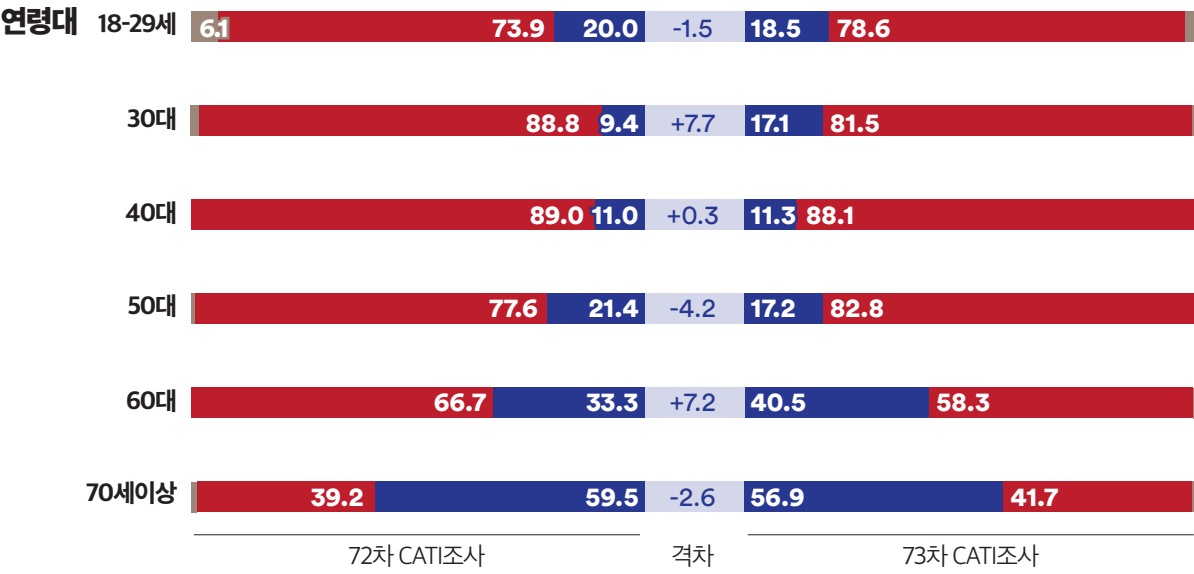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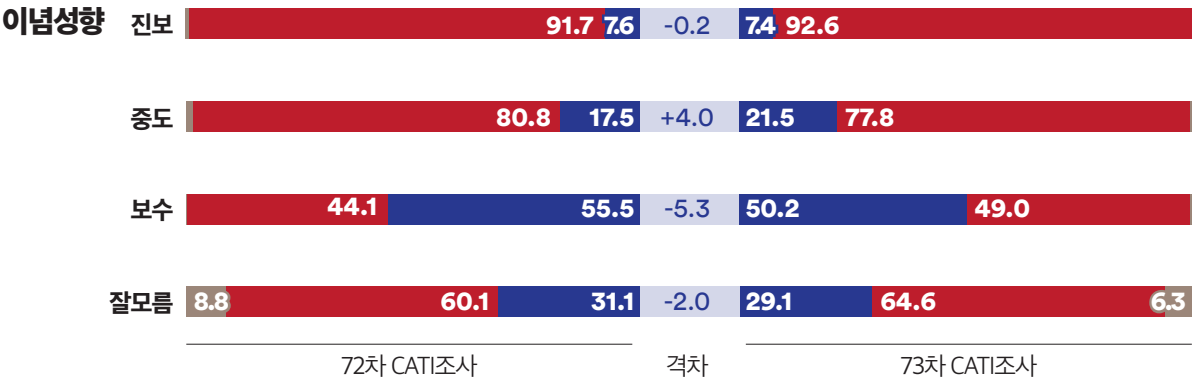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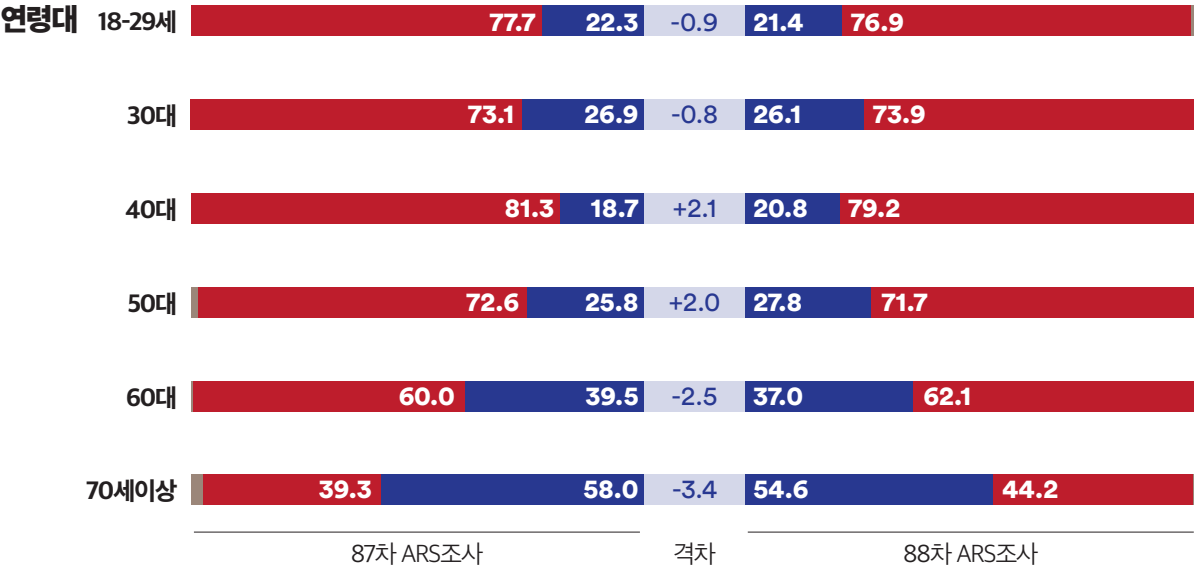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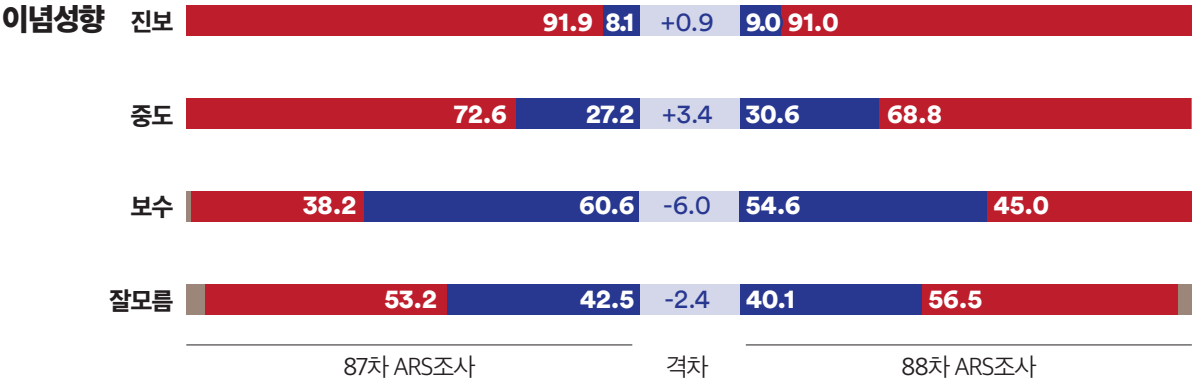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격차

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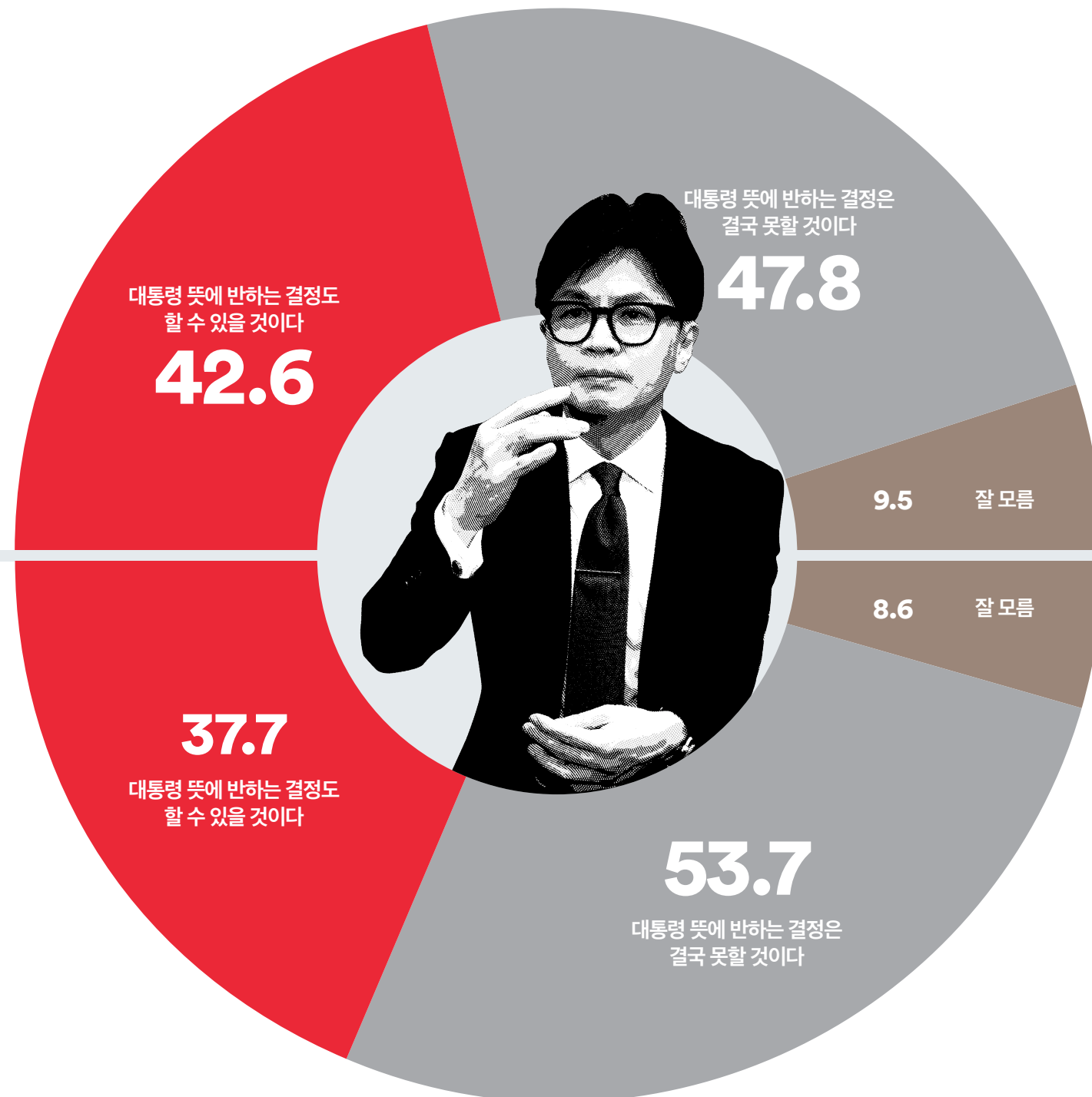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만약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된다면
윤 대통령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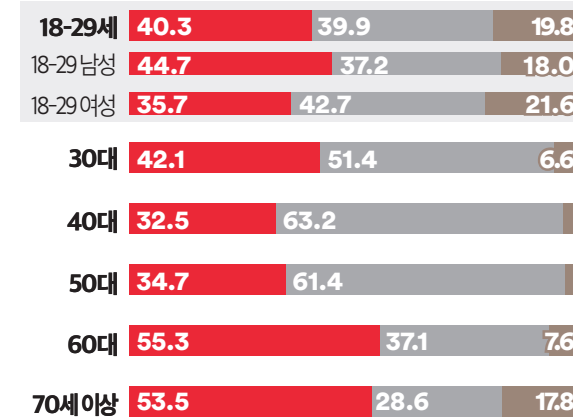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대통령 뜻에 반하는 결정은 결국 못할 것'이란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응답 간 격차: CATI 5.2%p, ARS 16.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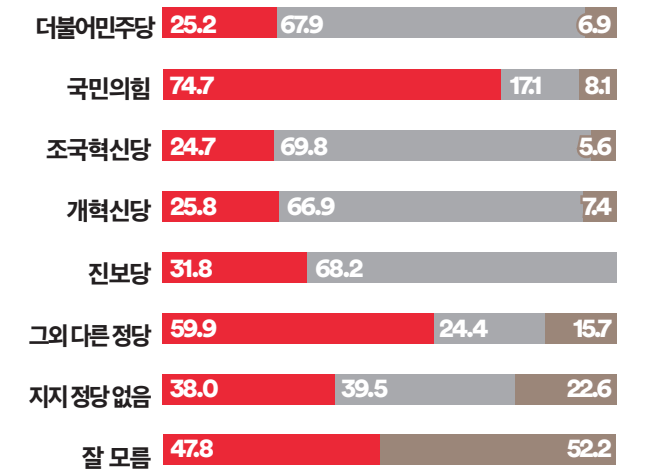
진보층 및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결국 못할 것'이란 응답이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 및 보수층에서는 '할 수 있을 것'이란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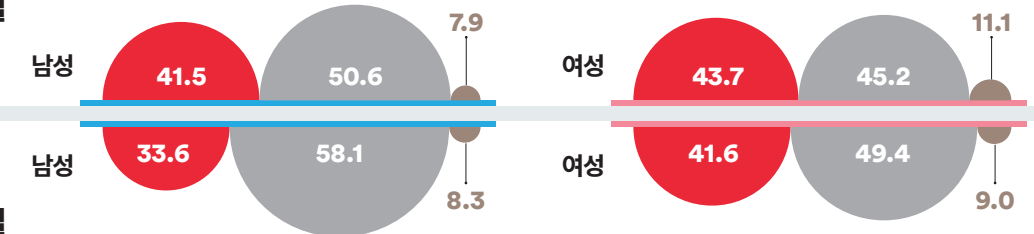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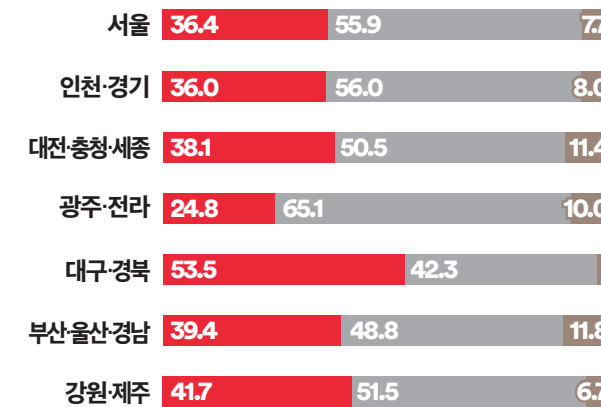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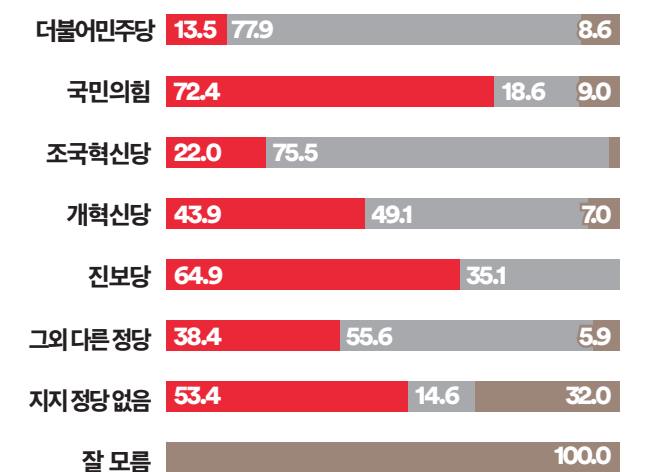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대통령 뜻에 반하는 결정도 할 수 있을 것 (red)
대통령 뜻에 반하는 결정은 결국 못할 것 (grey)
잘 모름 (br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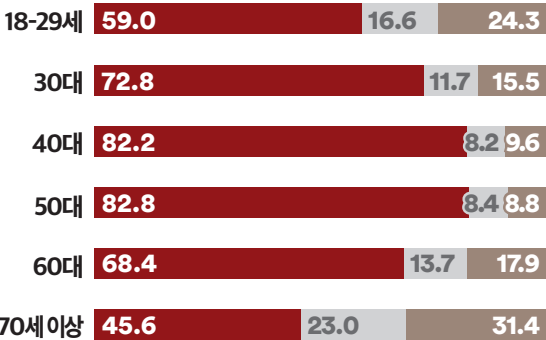
채 해병 사건: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 통화

Q. ‘채 해병 사건’이 경찰에 이첩된 당일, 윤 대통령은 당시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비서관 등과 수차례 개인 핸드폰으로 통화했습니다.
어떤 통화였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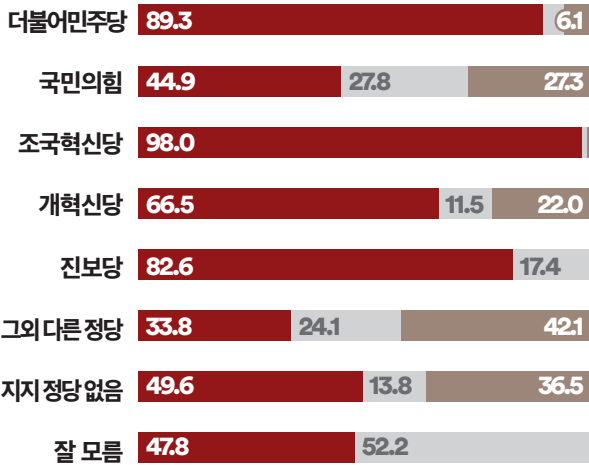


10명 중 7명 정도(69.5%)는 ‘채 해병 수사와 관련된 통화였을 것이다’라고 응답, 압도적 우세를 보임(격차 56.3%p)
모든 성·연령대·권역별 변수에서 ‘채 해병 수사와 관련된 통화였을 것이다’라는 응답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 및 보수층에서도 ‘채 해병 수사와 관련된 통화였을 것이다’라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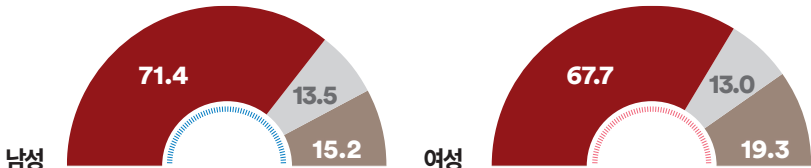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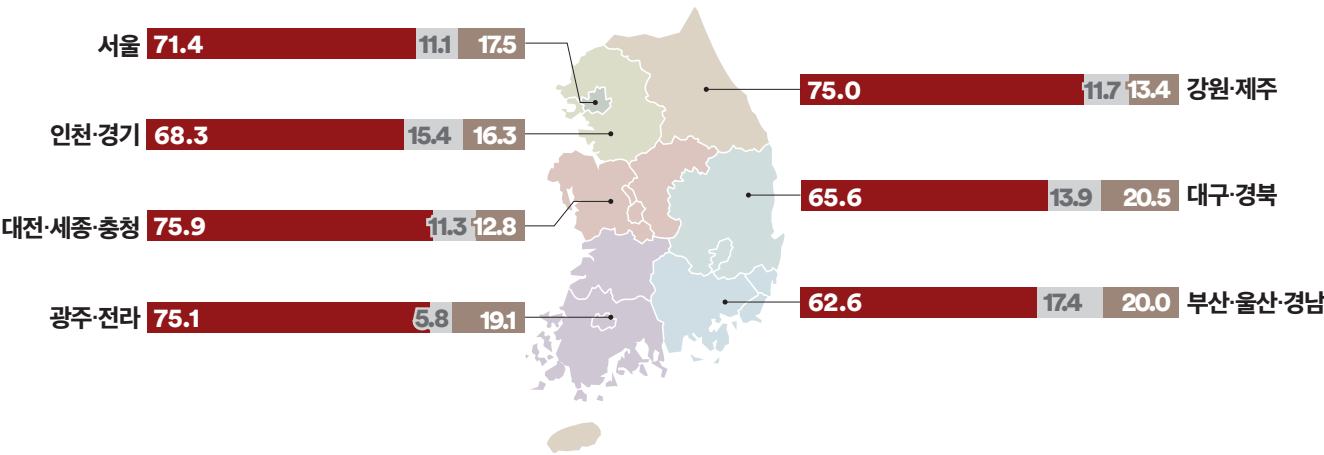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채 해병 수사와
관련된 통화

채 해병 수사와
무관한 통화

잘 모름

채 해병 사건: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 압수수색

Q. ‘채 해병 사건’ 관련해 대통령 개인 핸드폰을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야당에서 주장하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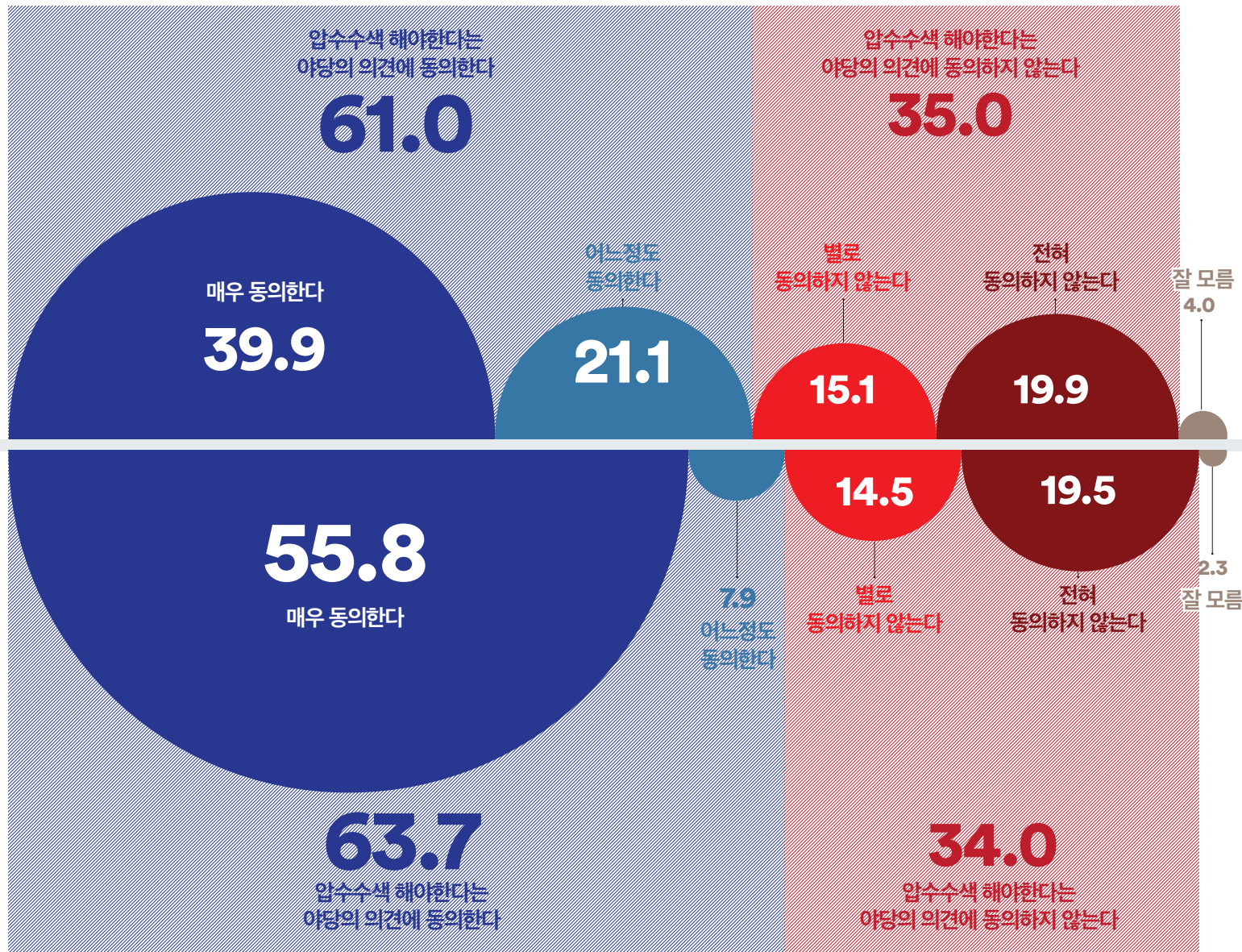
조국혁신당

“채 해병 사건,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스모킹 건은 바로 대통령의 개인 전화입니다. 공수처는 지금 당장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하십시오. 대통령의 핸드폰 제출을 요구하십시오. 제출하지 않으면 당장 압수수색 하십시오.”
[6월 3일 조국혁신당 ‘채 해병 사건’ 윤석열 대통령 고발 기자회견 중]

더불어민주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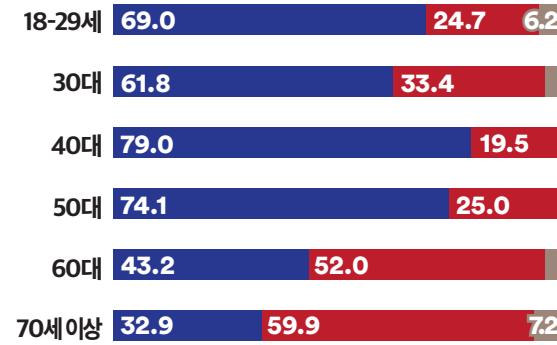
“7월 20일부터 대통령실과 관계자들의 수사외압과 관련된 통화기록들이 말소되게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당장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 이시원, 임기훈을 압수수색하여 휴대전화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6월 24일 민주당 법사위 ‘휴대폰 압수수색 촉구 기자회견’]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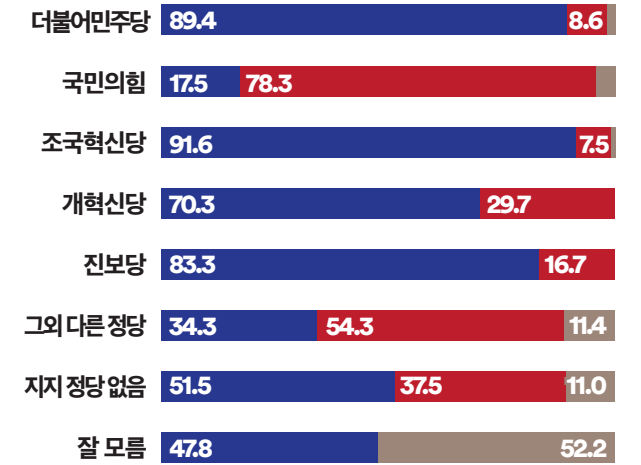


10명 중 6명 이상은 ‘(대통령 개인 핸드폰 압수수색에)동의한다’고 압도적으로 응답(응답간 격차: CATI 26.0%p, ARS 29.7%p)
CATI 조사의 TK권을 제외하면, 두 조사의 나머지 권역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50대 이하 응답층(ARS는 60대 포함), 진보층·중도층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 및 보수층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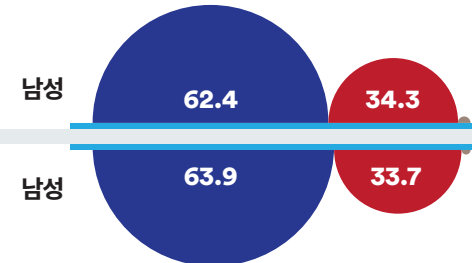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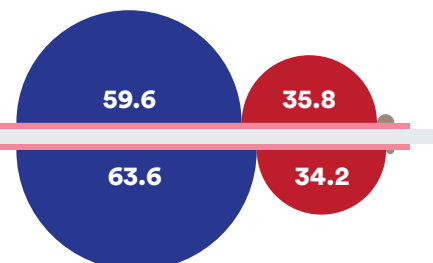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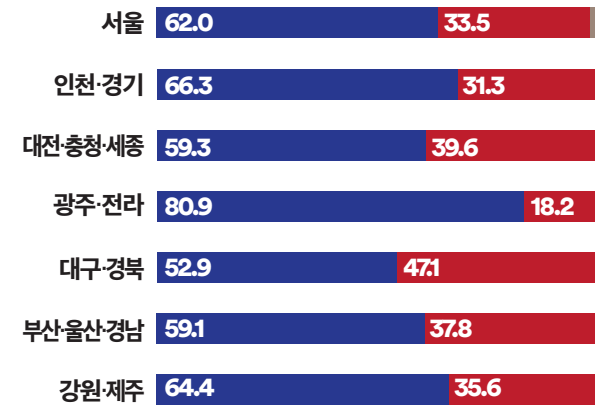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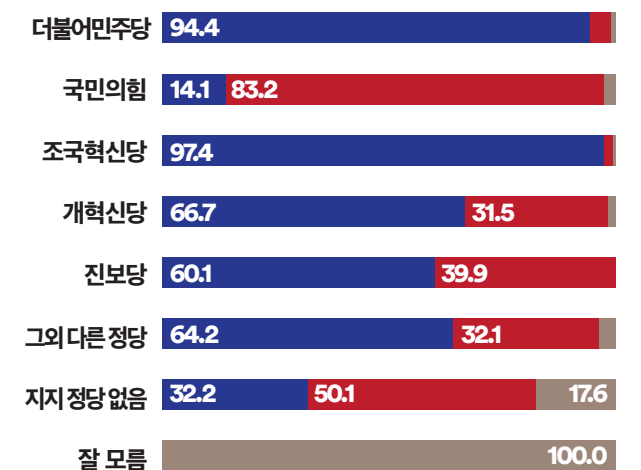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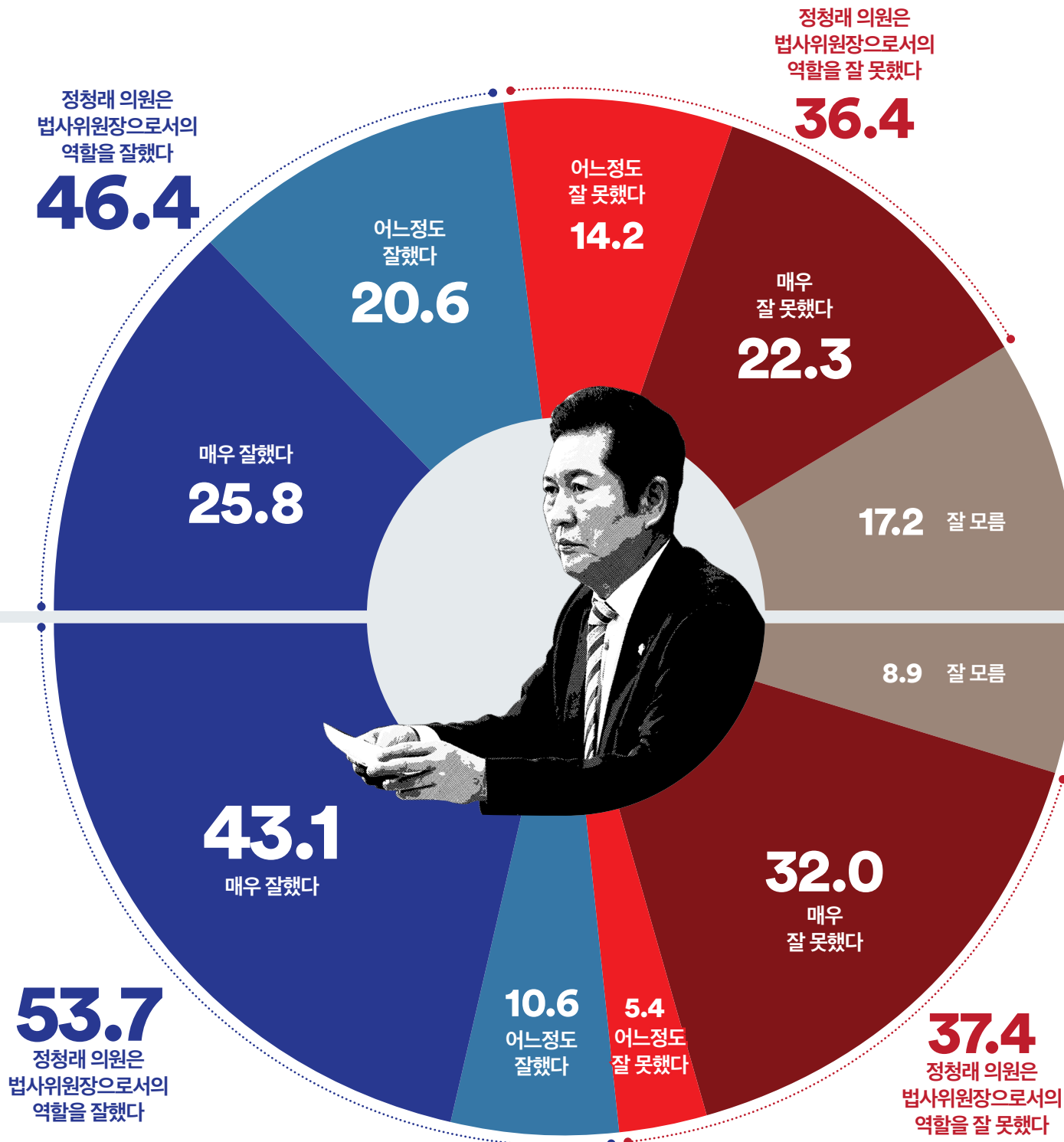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 야당의 의견에 동의한다 ■ 야당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 잘 모름

Q. 지난주 법사위 ‘채 해병 입법청문회’를 주재한 정청래 의원의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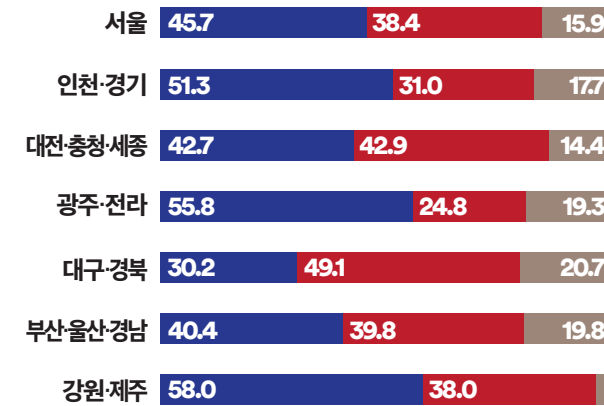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의 역할을 잘했다’는 응답이 우세(응답간 격차: CATI 10.0%p, ARS 16.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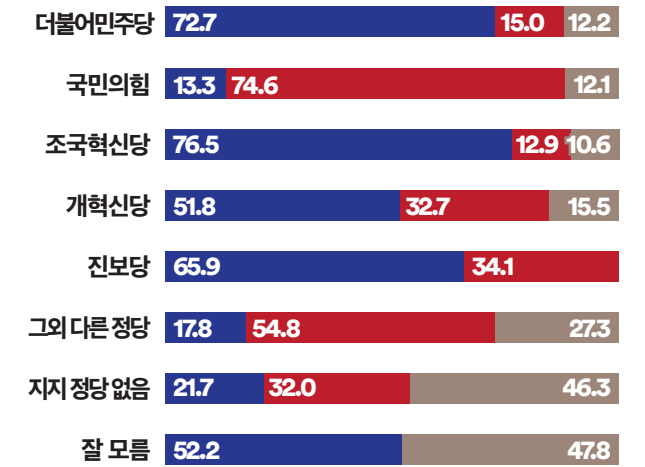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 진보층·중도층, 30~50대 응답층에서는 ‘잘했다’는 응답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잘 못했다’는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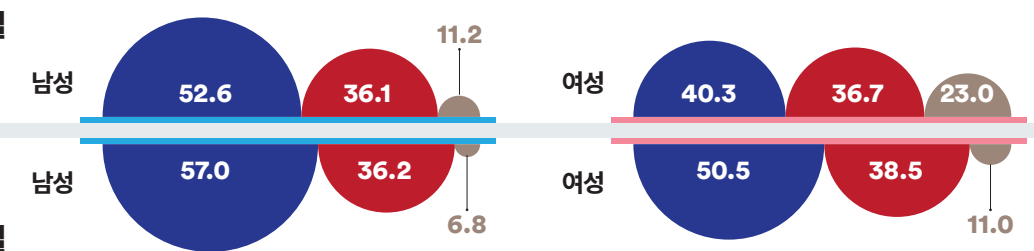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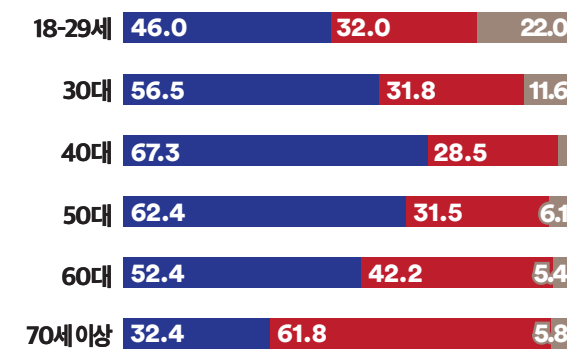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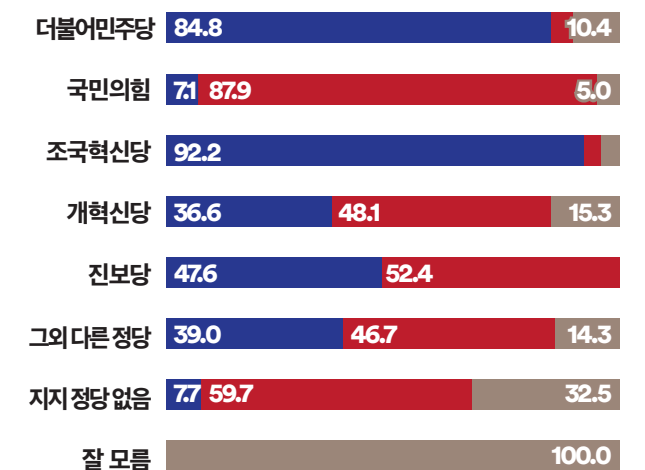
성별



연령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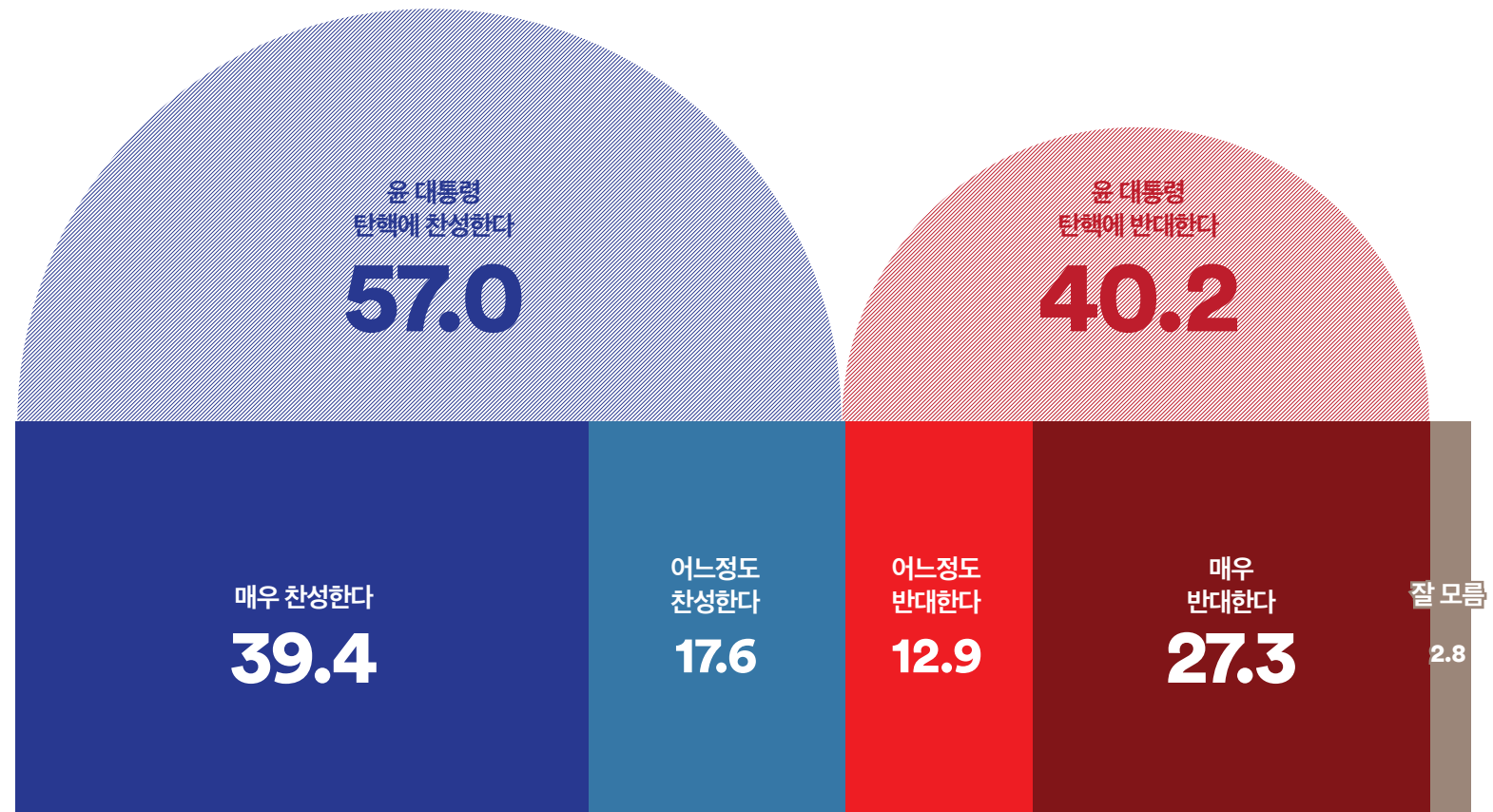
■ 역할을 잘했다 ■ 역할을 잘 못했다 ■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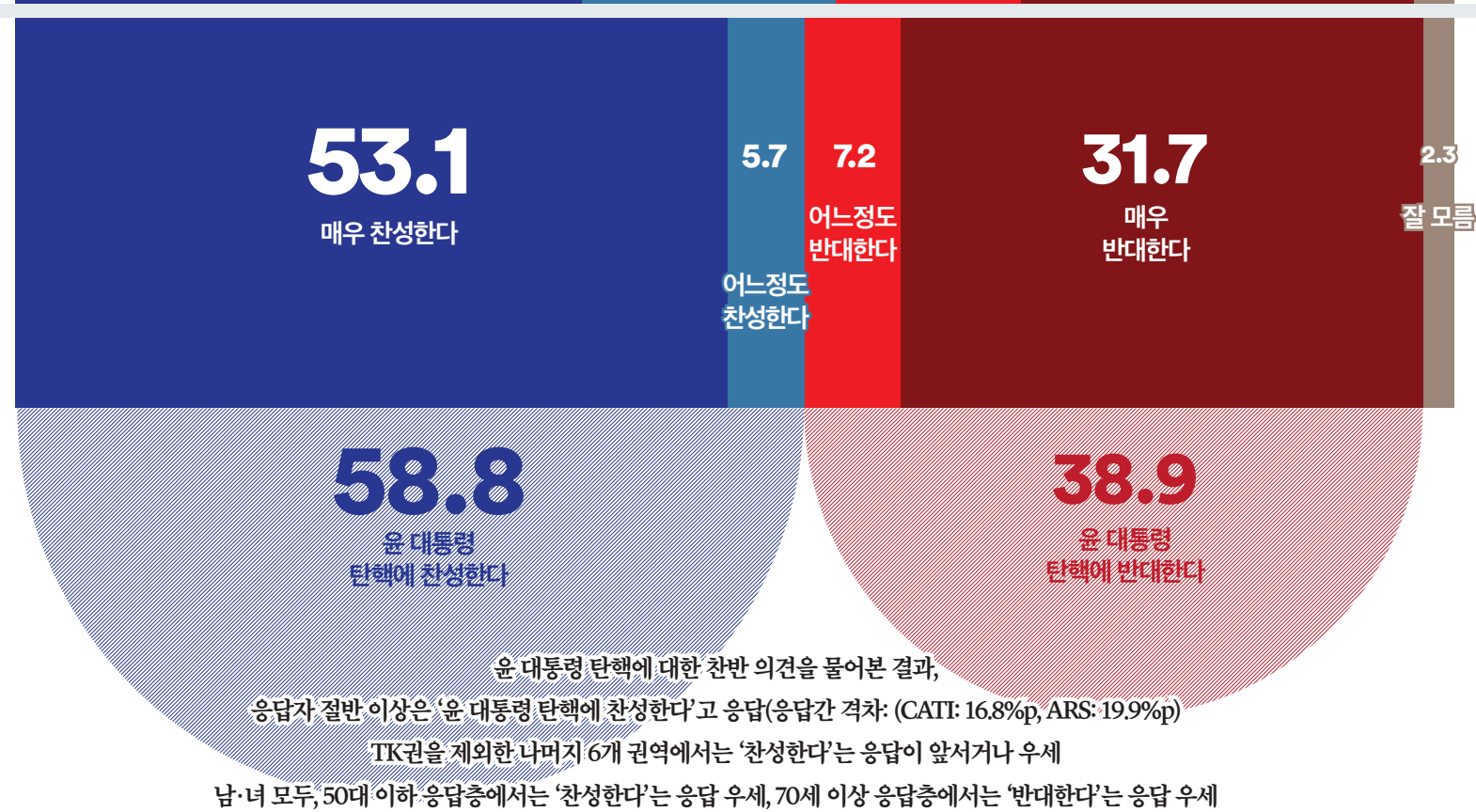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Q.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1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사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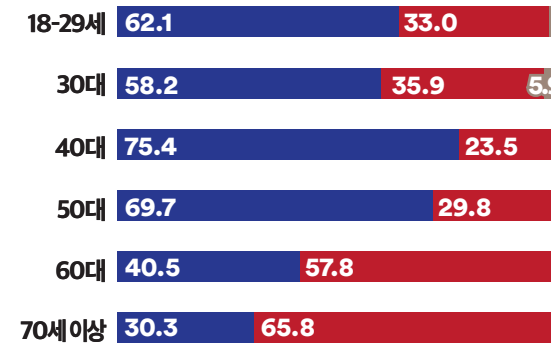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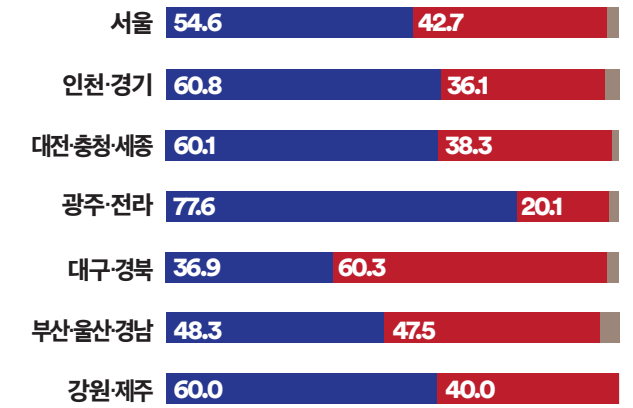
ARS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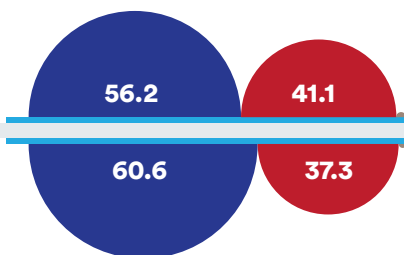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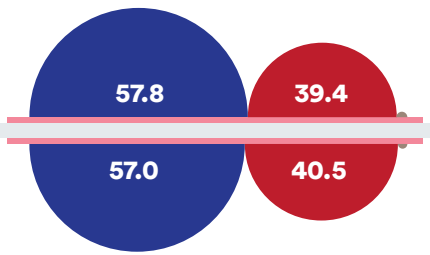
남성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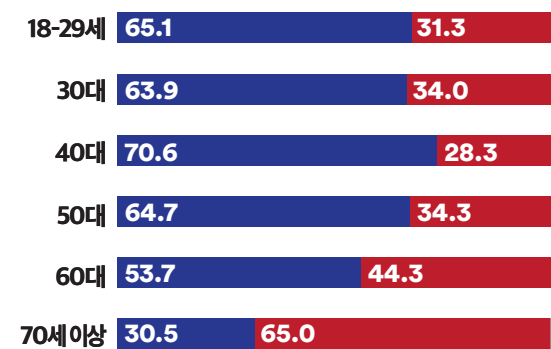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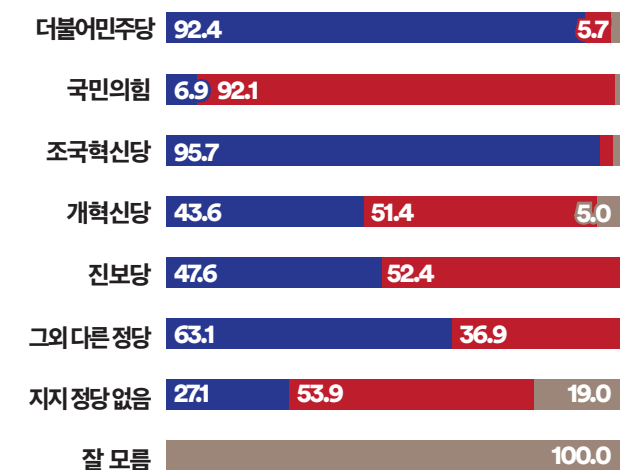
여성



연령



정당지지도



■ 찬성한다 ■ 반대한다 ■ 잘 모름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407_01
